

韓國 취업주부의 結婚滿足度에 關한 研究

— 性役割態도와 主觀的 資源認知的 影響을 中心으로 —

朴 美 玲

수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A Study on Marital Satisfaction of Korean Employed Wives

— Focused on Sex-role Attitude and Recognized Resources —

Park, Mee Lyoung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College of Home Economics, Suwon University

1. 문제의 제기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결혼과 직장은 여성에게 있어 이미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아직도 분명히 여성에게 있어 결혼은 취업에 장애가 되는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결혼 후에도 직업을 계속 가지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결국 취업주부를 가진 가족의 증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가족관계의 여러변화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가족에서의 다른 많은 변화와 마찬가지로 취업주부 가족의 증가는 해당 여성의 의식변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급격한 산업화에 의한 필요에 의해 가속된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제반 사회여건이 취업주부를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 있지 못하면서 취업주부가 증가하는 현상은 취업주부 자신이나 취업주부를 포함하고 있는 가족의 적응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가정과 직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취업주부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부여되었던 가정내 역할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그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역할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가정내 역할의 축소내지는 재적용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주부의 취업은 주부로 하여금 경제적 능력을 소

유하게 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주부에게 요구되어온 가정내 역할의 수행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주부가 취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물질적 보상은 가정경제를 윤택하게 함으로써 취업주부가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취업에 따르는 주부의 과중한 역할부담이나 역할의 부적절한 수행은 취업주부의 가족을 갈등에 빠뜨릴 수 있으며 특히 취업주부 자신이나 그 가족이 주부의 취업에 따르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용, 새로운 가치관으로 대응하지 못할때 그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부의 취업은 주부자신의 성취욕구를 달성시켜 주며 사회생활을 통한 재사회화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남편을 위시한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우호적이고 상호수용적인 관계로 변화시킬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주부의 취업은 취업주부의 가족관계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경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초점을 부부관계에 맞추어 취업주부의 대(對)가족 적응상태를 알아 보고자 한다.

따라서 주부의 취업이 취업주부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원인을 밝혀봄으로써 취업주부의 가족관계 적응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한국 취업주부 가족의 변화방향을 예견해 보고자 한다.

2. 관련연구 고찰

주부의 취업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그간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몇가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부인 취업이 결혼만족도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도 있고(Houseknecht와 Mache, 1981. Yogev, 1981. Booth, 1977. Burke & Weir, 1976. 배민자, 1980. 김은주, 1979.) 반대로 부인취업의 부정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Feldman & Feldman, Hoffman, Nye, Bahr 등 1974, p195, 재인용, Axelson, 상게서, p196재인용)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는(Wright, 1978. Feldman, Hoffman, Nye, Bahr 등, 1974, p.195 재인용)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부인취업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가 정적 혹은 부적관계로써 단순화될 수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부인취업의 영향은 관련변수의 통제여부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체로 그간의 연구에서 부인취업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언급되고 있는것은 부인의 취업동기, 시간제취업이나, 전일제취업이나의 취업의 수준, 사회계층, 교육수준, 가족생활주기, 성역할태도등이다. (Hoffman, Nye, Bahr 등, 1974. Burr, Nye, and Reiss, 1979. Order & Bradburn, 1969. Richardson, 1979, McDonald. 1980. 이정연, 1987. 박태은, 1983. 이미숙, 1985., 이정우, 정종희, 1984).

따라서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현상적인 의미에서 크게 세가지 견해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부인의 취업이 부부간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부인의 취업이 결혼의 행복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견해이다. 마지막 하나의 견해는 부인취업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변수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는 견해이다.

부인의 취업이 부부간 갈등을 일으키리라는 견해는 대체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의거한 여성 및 남성의 자아특성과 부인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역할갈등이라는 두가지 개념에 의해 뒷받침 되어 왔다. 즉 여성의 취업은 여성적 자아특성에 잘 맞지 않으며, 남성의 역할영역을 침해하고 여성의 고유 역할 영역에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첨가함으로써 역할갈등을 야기시켜, 부부관계의 부적응을 가져 온다는 것이다. 정신분석 학자들은 여성을 본질적으로 의존적이며, 양육적인 속성을 지니며 비공격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 자녀양육이나 보조적 활동을 하는 것이 여성의 신체적 및 심리적 특성에 알맞는 것으로 보았다(Hoffman, Nye, Bahr 등, 1974).

따라서 여성이 취업을 하는 것은 공격, 경쟁, 지배등의 비여성적인 특성을 조장함으로써 비공격적이며 의존적인 여성의 신체적 및 심리적 특성에 상치되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여성의 취업은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과 경제적 부양자역할을 공유케함으로써 남성의 자아에 손상을 가져오고 배우자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주부의 취업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보는 입장은 주부의 취업에 따른 부부간의 역할공유가 배우자간의 따뜻하고 보상받는 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주부의 취업에 따라 전통적 성역할 분담양상이 다소간 변화됨으로써 남편과 아내가 직업인으로써의 생활을 공유하고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부부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욱 애정적인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Nye는 "취업은 가족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어머니의 위세와 남편의 부인에 대한 평가를 높이며 가족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의 양을 증가시키고 부인은 직업과 관련된 사회접촉을 즐긴다"고 함으로써(전게서, 1974) 주부의 취업에 따르는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부부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부인의 취업은 가정에 경제적 수입을 증가시키며 나아가 남편과 아이들로부터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심리적 보상을 주고 가족내 권력 관계를 남성지배로부터 민주적 권력관계로 변화시키며, 부인에게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

인의 취업이 가지는 긍정적 영향을 주장하는 견해는 취업에 따른 성역할분담 양상의 변화에 따라 부부가 공동의 역할영역을 확장하게 됨으로써 부부간의 애정적 유대를 강화시키고 또한 취업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부부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부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부인취업의 영향에 대한 상반된 두 견해는 부인 취업에 따르는 남녀의 자아특성의 상충과 역할갈등이라는 갈등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과 새로운 생활방식으로서의 부인취업이 가져올 수 있는 역할공유 및 이에 따른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보상의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부인취업이 가지는 이 두 측면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부인취업은 위에 열거한 두 가지 현상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으며 어느 측면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부인취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상황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인취업에 따르는 상반된 두가지 현상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야만 부인취업의 효과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경험적 연구결과 나타난 세번째 견해-관련변수에 따라 부인취업의 효과가 달라진다는-가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 세번째 견해는 상반된 두가지 측면이 가지는 부인취업이라는 현상이 나타내는 효과는 그것이 진행되는 사회적, 심리적 맥락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인취업의 두가지 상반된 측면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인취업과 결혼만족도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매개변수의 존재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경험적 연구에서 부인취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매개변수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나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취업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해당 주부가 가진 성역할 태도와 관련시켜 봄으로써, 경험적 연구결과 나타난 세 견해를 통합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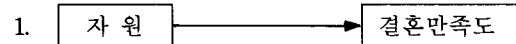
따라서 결혼만족도와 부인취업과의 관계를 연결

시키는 주요 요인으로써 성역할 태도변수를 채택하고, 그것과 다른 변수들의 관련성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 설명을 위한 설명모형

앞서 살펴 본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현상적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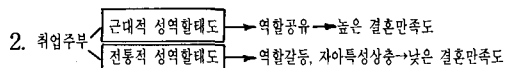
설명모형의 첫 단계는 다음과 같다.



즉, 부인의 취업으로 얻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자원은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Blood와 Wolfe에 의해 주장된 자원이론(資源理論)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다. 상대적자원이론(Comparative Resoure Theory)으로도 불리지는 자원이론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같이 부부권력 관계에 미치는 자원의 영향을 강조한 이론이다. Blood와 Wolfe는 결혼같은 매우 밀접한 관계내에서의 권력의 원천은 남편과 부인이 결혼내로 가져오는 상대적 자원에 의해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경우 자원은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유용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Blood & Wolfe,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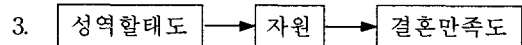
이러한 견지에서 Blood와 Wolfe는 교육수준, 공식적 조직에의 참여, 직업, 생활주기변화 등을 부부가 가지는 자원으로 보고, 각각의 자원이 부부권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보고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현대에서의 주요 규범은 남성지배나 평등주의 같은 특정형태가 아니라 적절성의 개념(the idea of appropriateness)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정 규범이 아니라 어떠한 규범의 지배를 받는 것이 적절한가를 결정하는 배우자간의 상호작용이며, 그 과정에서 자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원이론을 부인의 취업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적용시켜 보면 부인의 취업에 따르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자원은 부부관계에 대한 적절성의 개념(어떤식의 부부관계가 바람직 한가?)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결혼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부인이 취업에 따라 가정내로 가져오는 자원은 부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부부관계(적절성의 개념)로 자신의 부부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자원이론의 적용에 의해 설명되는 자원이 가진 결혼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경험적 연구결과 나타난 첫번째 견해-부인의 취업이 결혼만족도를 높인다-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인취업으로 얻게 되는 자원의 영향력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부인취업이 결혼의 만족을 감소시킨다는 경험적 연구결과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부인취업이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킬때, 그 이유는 부인취업이 남녀자아 특성의 상충과 역할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결혼의 불만족과 관련되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역할갈등이나 남녀자아특성 상충을 경험케 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변수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성역할 태도가 남녀 역할에 대한 규범적 인식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역할 태도는 그 사람이 가진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남성성이나 여성성 같은 자신의 자아특성에 대한 기대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부인이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졌을때 취업여성이라는 신분적 위치는 취업주부 자신이 가진 여성적 이미지와 맞지 않으며 따라서 역할 갈등을 크게 유발하리라 볼 수 있다. 반면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가졌을때 취업에 따른 자아특성 상충이나 역할갈등 유발경향은 적어지고 남녀간 역할 공유의 방향으로 접근해 나갈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나타낸 것이 설명모형 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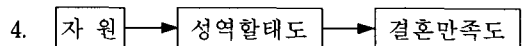


한편 자원의 효과역시, 남녀자아 특성의 상충이나 역할갈등에 의해 감소되거나 나타나지 않는데, 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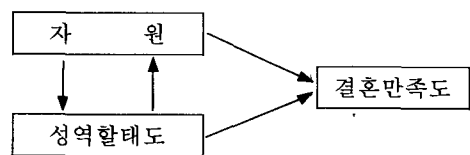
자아특성 상충이나 역할 갈등을 일으켜 자원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또한 규범으로써의 성역할 태도이다. 자원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의 규범-이 경우 성역할태도-의 영향력은 Rodman의 규범적 자원이론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으며 이를 도식화 한 것이 다음의 설명모형3이다. Rodman의 규범적 자원이론은 자원이 가진 영향력은 그 자원이 작용하는 배경사회의 규범에 의해 제한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MacDonald, 1980). Rodman의 규범적 자원이론을 부인취업의 효과연구에 적용할때 경험적 연구결과 나타난 세번째 견해-부인취업의 효과는 관련변수에 따라 유동적이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설명모형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한편 Blood와 Wolfe는 자원이 어떤 규범의 영향을 받는 것이 적당한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부인취업에 의해 획득되는 자원이 해당주부가 가진 규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도식화 한 것이 다음의 설명모형 4이다.



이상의 네가지 설명모형은 결국 부인취업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의 여러 양태를 나름대로의 이론에 근거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앞서 밝힌바와 같이 부인취업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보기 위해서는 부인취업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의 여러 양태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설명모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앞의 네가지 설명모형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설명모형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위의 설명모형은 취업에 따른 자원, 취업주부가 가진 규범으로서의 성역할태도, 그리고 결혼만족도의 세 변수의 관계로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인 취업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효과의 양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나아가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원과 성역할태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 자원과 성역할 태도와의 상호작용 효과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설명 모형에 의거한 구체적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인이 취업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으로 인지하는 자원(主觀的 資源認知)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취업부인이 가지는 근대적 성역할 태도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부인의 취업에 따라 얻게 되는 것으로 인지하는 자원과 부인이 가진 성역할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자원과 성역할 태도사이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4.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직업을 가진 유배우 부인으로 서울 경기 및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주부 551명이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전문직, 전문기술직, 사무직, 외판직, 생산 및 근로직의 5개 직업군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전문직으로는 의사와 교수가 포함되었고, 전문기술직으로는 초·중등학교 교사와 간호사가 포함되었다. 사무직으로는 은행원, 회사원, 공무원이 포함되었으며 보험외판원, 서적의판원, 화장품외판원 등이 외판직으로 포함되었다. 생산 및 근로직에는 공장근로자, 빌딩청소원, 파출부, 식당근로자들의 직종이 포함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결혼만족도척도, 성역할 태도 척도, 그리고 취업주부 자신이 취업을

통해 얻는다고 인지하는 자원을 측정하는 자원척도의 세가지이다.

ㄱ) 결혼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전반에 대한 부부의 주관적 만족정도”로 개념정의 되어, 결혼만족도는 만족에서 불만족에 이르는 연속선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척도의 구성은 Roach의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기초로 37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MSS 척도의 기본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응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였다. 37개 문항은 사전조사를 통해 총점과의 상관이 낮은(상관계수, 0.3이하) 2개 문항이 제외되었다. 최종 선정된 35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이 Cronbach의 α 계수에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α 계수는 0.96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신뢰성 있는 척도로 판명되었다.

ㄴ) 성역할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성역할 태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과 관련된 역할이나 태도에 관한 규범적 지향성”을 말한다. 따라서 Scanzoni와 Fox의 성역할선호와 같은 의미와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Scanzoni, Fox, 1980). 성역할태도 척도는 Brogan과 Kutner(Brogan, Kutner, 1976)가 제작한 Sex-role orientation scale을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다. Sex-role orientation scale의 문항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1. 결혼내에서의 전통적 성에 의한 노동분담에 대한 태도
2. 전통적인 성에 의한 권력구조에 대한 태도.
3. 여성과 남성의 전통적 및 비전통적 취업에 대한 태도
4. 여성과 남성의 전통적 정치적 지위에 대한 태도.
5. 여아 및 남아에게 적합한 성역할 행동에 대한 현존하는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

Sex-role orientation scale은 6개의 응답범주를 가진 Likert 척도로서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 척도로 바꾸어 사용하였

다. 또한 척도제작 과정에서 기존 36개 문항중 문항의 이해가 어렵거나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3개 문항이 제외되었다. 또한 Sex-role orientation scale의 기본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응답자들의 이해가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구성된 33개 문항을 가지고 사전조사가 실시되었다. 사전조사 결과로 토대로 33개 문항 각각의 점수와 전체 점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알아 보았다. 그 결과 상관계수가 0.3 이하로 나타난 7개 문항이 제외되었다. 또한 문항의 내용이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두 문항중 한문항이 제외되어 25개 문항이 최종 척도로 선택되었다. 선택된 25개 문항은 $p < 0.002$ 의 수준에서 총점수와의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최종 척도로 선택된 25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은 Cronbach의 α 계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α 계수 0.87로 나타나 신뢰성 있는 척도로 판명되었다.

ㄷ) 자원척도

본 연구에서 자원은 “부인이 취업함에 따라 얻게 되는 경제적, 사회적 및 심리적 보상”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자원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의 객관적 준거에 의해 측정될 수도 있으며 취업 주부 자신의 입장에서 본 주관적 준거에 의해 측정되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자원은 크게 객관적으로 평가된 자원과 주관적으로 평가된 자원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입의 액수라든가 직업의 위세 같은 객관적인 평가기준보다는 주부가 직업을 통해 얻는다고 생각하는 보상이 주부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리라 보고 주관적 준거에 의해 자원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원은 “부인이 취업을 통해 획득한다고 인지하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보상”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되는 주관적 자원인지(主觀的資源認知)에 의해 측정되었다. 자원을 측정할 수 있는 기존의 측정도구로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

원측정도구가 본 연구를 위해 새로이 마련되었다. 자원척도의 제작을 위해 Safilios-Rothschild의 자원의 7개 영역을 참고로(Safilios-Rothschild, 1976) 부인 취업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자원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였다.

도표1. 취업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자원목록

1. 경제적	· 수입의 기여	· 생활비 보탬의 측면 · 생활의 질 향상의 측면
2. 사회적	· 남편의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 특권	· 동료관계에서 오는 보상 · 직업자체에서 오는 보상 (자기세계 소유의 측면)
	· 부인취업에 의한 사회이동 가능성 증가 · 부부간 권력 · 남편으로 부터의 서어비스 측면 (집안일이나 아동양육)	
3. 심리적	· 남편으로 부터의	· 애정 · 이해 · 평가
	· 자녀로 부터의	· 애정 · 이해 · 평가
	· 직업성취에서 오는 지적보상 및 성취감	

이상 열거된 3가지 영역에서의 보상을 중심으로 17개의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사전조사를 통해 각 문항별 내적 일관성 정도가 분석되었다. 그 결과 총점수와의 상관이 0.3 이하로 낮게 나타난 2개 문항이 제외되어 15개 문항이 최종척도로 확정되었다. 확정된 15개 문항역시 $P < 0.002$ 의 수준에서 총점수와의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은 Cronbach의 α 계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신뢰도 계수 0.85로 신뢰성 있는 척도로 판명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상의 3개 척도를 가지고 1987년 8월 30일에서 9월 13일까지 설문지 조사에 의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는 빈도분포, 이원변량 분석과 이의 추후검증을 위한 Scheffé's Multiple Range Test, 그리고 중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이 사용되었다.

5.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대상자의 직종별 분포는 전문직이 105명으로 전체의 19.1% 전문기술직이 114명으로 전체의 20.8% 사무직이 123명으로 22.4% 외판직이 103명으로 18.8%였으며 생산 및 근로직은 104명으로 전체의 18.9%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30~34세가 28.5%로(154명) 가장 많았고 35~39세가 18.7%(101명) 40~44세가 18.0%(97명)였고 20~29세가 10%(54명) 50세 이상도 13.3%(72명)로 대체로 각 연령층에 걸쳐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35.5세였다.

조사대상자의 학력분포는 고등학교졸업이 21.3% 대학교졸업이 46.1%였으며 대학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도 18.7%나 되었다. 직장생활을 통해 얻는 수입은 30~39만원이 20.8%로 가장 많았고 19만원 이하도 21.6%로 많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가진 경우도 5.9%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의 수입은 60~99만원이 21.6%로 가장 많았고 30~39만원 17.5% 40~49만원이 17.3% 100만원 이상이 15.5%로 나타나 부인의 수입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성역할 태도점수는 최저 45점에서 최고 112점의 분포를 나타냈다. 평균은 78.4점이었으며 중위값은 79점이었다. 성역할 태도는 응답자들의 점수분포를 고려하여 45~78점 까지를 전통적 태도로 79~114점까지를 근대적 태도로 분류하였다. 응답자들의 자원점수 분포는 15점에서 63점까지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점수분포를 고려해 15~34점 까지를 소자원집단, 35~40점 까지를 중자원집단, 41~63점까지를 대자원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응답자들의 결혼만족도는 최고 165점에서 최저 54점의 분포를 나타냈다. 응답자 전체의 결혼만족도 평균은 119.1점이었으며 이는 문항 평균 3.4점으로 중간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2) 가설검증 : 성역할태도 및 주관적자원인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부인이 취업함으로 얻게되는 것으로 인지하는 자원(주관적자원인지)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취업부인이 가지는 근대적 성역할태도는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부인의 취업에 따라 얻게되는 것으로 인지하는 자원과 부인이 가진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자원과 성역할태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먼저 가설 1, 2, 3의 검증을 위해 자원과 성역할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원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 표1의 이원변량분석표에 따르면 성역할 태도 및 자원의 주효과가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자원과 성역할 태도는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자원과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자원과 성역할태도사이의 상호작용효과를 가정한 가설3은 기각되었다.

표1. 결혼만족도와 성역할태도 자원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Source	S·S	d·f	M·S	F	sig of F
성역할태도	3567.123	1	3567.123	10.722	$P < .001$
자원	9668.793	2	4834.396	14.531	$P < .001$
성역할태도×자원	309.033	2	154.517	.464	N·S
Explained	15740.778	5	3148.156	9.463	$P < .001$
Residual	140393.678	422	332.686		
Total	156134.456	427	365.654		

주효과가 나타난 성역할 태도와 자원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주부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그 평균치를 통해 비교해 보면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주부의 결혼만족도 평균이 115.0점이고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주부의 경우 122.36점으로 나타나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이에 따라 성역할 태도변수의 긍정적 영향을 가정한 가설1은 수락되었다.

표2. 성역할태도별 결혼만족도 평균분포

전	통	근	대
115.00		122.36	
(200)		(228)	

따라서 취업주부의 경우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니는 것보다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지니는 것이 취업에 따른 제 역할체계에의 융통성 있는 적응에 도움을 줌으로써 보다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이루게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자원의 경우는 대자원 집단 중자원집단 소자원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자원이 많을 수록 낮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내 주목된다. 또한 이에 대한 Scheffés Multiple Range Test 결과도 각 자원집단간의 결혼만족도가 자원의 증가에 따라 유의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표3)

표3. 부인자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Scheffés Muetiple Range Test 결과

부 인 자 원	대자원집단	중자원집단	소자원집단
대자원집단(112.27)			
중자원집단(118.70)	*		
소자원집단(124.82)	*	*	

* P<.05

따라서 비록 자원이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긴 하나 그 방향이 부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원의 긍정적 효과를 가정한 가설2는 기각되었다. 이는 취업에 따라 증가하는 자원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는 자원이론의 시각이 적어도 본 조사대상취업 주부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어서 매우 주목되는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의 가설3으로 제시되었던 자원과 성역할태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취업주부의 성역할 태도 및 자원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양상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자원 및 성역할태도별 결혼만족도의 평균분포를 교차표로 만들어 보았다. 표4의 결과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면서 취업을 통해 많은 자원을 얻는 취업주부집단이 가장 낮은 결혼만족

도를 나타내는 반면,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며 취업을 통해 적은 자원을 얻는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보여준다.

표4. 자원 및 성역할태도별 결혼만족도

	소자원집단	중자원집단	대자원집단
전	121.81	114.74	110.47
통			
근	127.37	122.65	114.21
대			

성역할태도가 남녀역할에 대한 규범적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전통적 태도를 가지며 취업을 통해 많은 자원을 얻는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가 낮은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적 태도를 가지는 경우에도 자원을 많이 얻는 경우보다 적게 얻는 취업주부의 경우 더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적어도 취업주부의 경우 취업을 통해 획득하는 자원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효과를 가지며 그 효과는 근대적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상쇄할 만큼 크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자원-성역할태도-결혼만족도에 대한 중회귀 분석결과는 이 사실을 보다 분명히 밝혀준다. 즉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원과 성역할 태도의 효과에는 그 영향력의 크기 뿐 아니라 영향력의 방향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표5).

표5. 자원-성역할태도-결혼만족도의 중회귀분석 결과

	B	SE B	BETA	T	sig of T
자 원	-.83556	.13378	-.28723	-6.246	P<.001
성역할태도	.27397	.08205	.15356	3.339	P<.001
Constant	128.96512	8.78927		14.673	P<.001

즉 자원의 Beta 계수는 -0.28723이며 성역할 태도의 Beta 계수는 0.15356으로서 자원의 영향력이 성역할 태도의 거의 두배로 나타나고 있다. 더우기 성역할 태도가 가지는 영향력의 방향이 정적방향인데 비해 자원은 부적방향으로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4에서 취업주부 자신이 근대적성역할 태도를 가지는 경우에도 취

업을 통해 얻는 자원이 적을때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낸 것은 자원이 가지는 부적효과가 성역할 태도가 가지는 정적효과를 능가할 만큼 크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가설3으로 제시되었던 성역할 태도와 자원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원의 영향력이 성역할태도의 거의 두배에 가까운데다가 그 방향이 성역할태도와 달리 부적방향이어서 성역할태도의 정적 영향력을 상쇄하기 때문에 두 변수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보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취업주부가 취업을 통해 얻는다고 인지하는 자원이며 그 방향은 많은 자원을 얻을수록 낮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내는 부적방향이 다. 이에 비해 성역할태도가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효과는 자원의 부정적 효과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해석을 위해 부인특성의 주요변수인 학력, 직업, 수입, 연령의 네 변수 각각을 통제한 경우의 자원과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그 결과는 수입 및 연령을 통제했을 경우에만 性役割態度の 주효과가 나타났을뿐 학력과 직업을 통제했을 때는 성역할태도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그에 반해 資源의 効果는 이들 네 변수 中 어느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性役割態도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는 주로 就業婦人의 학력이나 직종에 따른 効果이며 이러한 변수를 통제할 경우는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資源이 結婚満足度에 대해 가지는 否定的 効果는 就業主婦의 학력이나 수입, 직종, 연령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就業主婦에 있어 就業를 통해 많은 資源을 얻는다는 것은 그 취업주부가 가진 여하한 特性에도 불구하고 結婚満足度에 否定的 影響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따라서 就業主婦의 近代的 性役割態도가 갖는 긍정적 효과는 資源의 부정적 효과에 비하면 미미한

표6. 직업, 학력, 수입, 연령을 통제했을때의 자원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이원 변량분석표.

Source	S·S	d·f	M·S	F	sig of F
직업 통제 시					
직업(Covariates)	17838.37	1	17838.37	57.653	P<.001
성역할태도	583.79	1	583.79	1.89	N·S
자 원	6533.34	2	3276.67	10.59	P<.001
성역할태도×자원	535.84	2	267.92	.87	N·S
Explained	25927.85	6	4321.31	13.97	P<.001
Residual	129952.47	420	309.41		
Total	155880.32	426	365.92		
학력 통제 시					
학력(Covariates)	13243.56	1	13243.56	41.73	P<.001
성역할태도	743.52	1	743.52	2.34	N·S
자 원	7793.49	2	3896.75	12.28	P<.001
성역할태도×자원	298.30	2	149.15	.47	N·S
Explained	22672.82	6	3778.80	11.91	P<.001
Residual	132992.55	419	317.41		
Total	155665.36	425	366.27		
수입 통제 시					
수입(Covariates)	2409.85	1	2409.85	7.175	P<.01
성역할태도	2598.29	1	2598.29	8.808	P<.01
자 원	8893.29	2	4446.65	13.239	P<.001
성역할태도×자원	327.02	2	163.51	.487	N·S
Explained	15720.36	6	2620.06	7.801	P<.001
Residual	140056.66	417	335.87		
Total	155777.02	423	368.27		
연령 통제 시					
연령(Covariates)	11319.545	1	11319.545	35.445	P<.001
성역할태도	1426.609	1	1426.609	4.467	P<.05
자 원	8028.171	2	4014.086	12.569	P<.001
성역할태도×자원	356.427	2	178.213	.558	N·S
Explained	22092.186	6	3682.031	11.530	P<.001
Residual	132212.446	414	319.354		
Total	154304.632	420	367.392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就業主婦들의 전반적인 性役割態도가 자신이 就業함으로 인해 획득하는 資源이 많은 경우 그것이 結婚満足度에 대해 가지는 否定的 影響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근대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는 就業主婦들의 경우 就業은 많은 資源을 수반하지 않는—다시말해 남편의 부양자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以上の 結果를 통해 적어도 本調査對象 就業主婦의 結婚満足도를 이해하는데 있어 資源理論의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비록 資源과 性役割態度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그 적용 가능성이 확실히 증명되지는 못했으나 취업주부의 結婚満足도는 규범적 자원이론에 의해 보다 더 적절히 說明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就業主婦가 가진 性役割態度는 자신이 就業을 통해 획득하는 資源을 結婚満足도를 증가시키는 方向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근대적이지 못하며 최소한 就業으로 획득되는 資源의 否定的 結果를 감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도 근대적이지 못하다는 結論이다. 이는 就業主婦가 職業에서의 성취와 家庭의 幸福을 상호, 葛藤的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어서 就業主婦의 성공적 職業 및 家庭的 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현재의 就業主婦들이 就業主婦役割에 대한 적합한 役割모델을 가지지 못한채 社會化過程을 거쳤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미비된 준비상태에서 뚜렷한 규범적 변화없이 외부적 사회변동에 의해 就業한데서 나타난 과도적 현상으로 解析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언급은 本 研究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6. 요약 및 결론

취업주부의 性役割態度와 主觀的資源認知가 취업주부의 結婚満足도에 미치는 영향을 中心으로 시행된 本 研究는 최근 增加하고 있는 主婦의 就業이 취업주부 자신의 結婚満足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就業主婦 家族의 가족관계 적응양상을 파악해 보기위해 시도되었다.

本 研究에서는 婦人の 就業과 結婚満足도와의

關係에 대한 經驗的 研究結果와 이를 說明할 수 있는 자원이론 및 규범적 자원이론의 두 이론을 바탕으로 主婦의 就業과 結婚満足도와의 관계를 자원과 규범으로서의 性役割態度라는 두 변수에 의해 개념화하였다.

여기에서 취업주부의 性役割態度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기된 資源과 性役割態度의 구체적인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資源은 「취업주부가 就業을 통해 획득한다고 認知하는 경제적·사회적·심리적 보상」을 意味하는 것으로 定義되어, 취업주부 자신의 主觀的資源認知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자원이론은 이러한 자원의 획득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로 性役割態度는 취업부인이 가지는 規範으로서 「個人이 가지고 있는 性과 관련된 役割이나 태도에 대한 규범적 지향성」으로 定義되었다. 규범적 자원이론은 자원의 영향력은 그것이 作用하는 배경사회의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규범적 자원이론에 의하면 취업주부가 가지는 성역할태도는 취업주부의 자원이 가지는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밝힌 세가지 가설검증을 통해 우리나라의 就業主婦들의 結婚満足도에 대한 資源의 효과와 性役割態度의 영향을 밝혀 봄으로써 우리나라 就業主婦의 結婚満足도를 說明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이론적 근거를 찾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조사자료의 分析結果 性役割態度의 긍정적 영향을 가정한 가설1은 수락되었다. 그러나 資源은 결혼만족도에 否的 영향을 나타냄으로써, 資源의 긍정적 영향을 가정한 가설2는 기각되었다. 또한 資源과 性役割態度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가설3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婦人이 就業을 통해 획득하는 資源과 婦人이 가진 性役割態度는 就業主婦의 結婚満足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임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두 변수는 영향력의 차이뿐 아니라 영향력의 방향도 다름이 밝혀졌다.

즉 性役割態度 및 資源과 結婚満足도와의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資源의 영향력(Beta = -.287

23)이 性役割態도의 영향력(Beta=.15356)보다 클 뿐만 아니라 그 방향도 다름이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性役割態도는 근대적일수록 結婚滿足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資源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性役割態도와 資源間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就業主婦의 結婚滿足도 양상은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지며 就業를 통해 많은 資源을 획득하는 집단의 결혼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고, 근대적 태도를 가지며 就業를 통해 적은 資源을 획득하는 집단의 結婚滿足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主婦가 就業를 통해 획득하는 資源이 주부 자신의 結婚滿足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보는 資源理論의 시각은 就業主婦의 結婚滿足도를 說明해 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도리어 主婦가 就業를 통해 획득하는 資源은 해당 主婦의 結婚滿足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의 강도가 성역할태도 변수의 거의 2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說明할 수 있는 對案的理論이 요구된다. 비록 就業主婦 自身이 가진 근대적 태도가 結婚滿足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원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現段階에서 就業主婦의 근대적 성역할태도가 가지는 긍정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資源이 가지는 강한 부정적 효과는 就業主婦의 전통적 가치관-부양자역할의 공유를 거부하는-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으로 近代的 性役割態도가 지니는 긍정적 영향은 就業主婦의 근대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性役割態도가 近代的일수록 結婚滿足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그것은 資源의 부정적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강한 영향력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직업, 교육수준, 수입, 연령 등의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에도 資源의 부정적 효과는 여전히 나타났으나 性役割態도 변수의 영향력은 수입 및 연령을 통제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就業主婦가 나타내는 近代的 性役割態度 경향은 직업수준이나 교육수준과 관련된 規範的認識의 수준에 머무를 뿐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할만큼 강한 경향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就業主婦가 나타내는 근대적 성향은 就業에 따른 資源의 획득과 이러한 資源의 획득을 위해 치러지는 댓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수용하고 나아가 結婚滿足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 아니고 就業를 통한 자기성취와 資源의 획득이 남편의 부양자 역할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여성적 이미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類似近代的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資源의 否定的 効果와 近代的 性役割態도의 긍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本 研究를 통해 얻은 結論을 총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就業主婦의 結婚滿足도를 이해하는데 있어 資源理論의 적용은 부적절하다. 就業主婦에 있어 就業를 통해 얻는 資源은 結婚滿足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향은 조사대상자들의 학력, 수입, 연령, 직업수준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둘째, 就業主婦가 가지는 규범으로서의 性役割態度는 근대적일수록 結婚滿足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취업주부에 있어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가지는 것은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就業主婦의 夫婦間 적용에 도움을 주는 것 같다. 그러나 近代的 性役割態度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는 資源의 부정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도 資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현재 就業主婦들이 갖고 있는 性役割態度의 근대성 정도는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就業主婦로서의 부부관계 적용에 어느정도의 도움은 주나, 자원의 획득에 따른 부양자역할의 공유를 수용할 만큼의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또는 就業를 통해 資源을 얻는데 따르는 댓가가 個人이 가진 규범의 영향을 받기에는 너무 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規範的 資源理論의 적용도 현상태에서의

우리나라 就業主婦의 結婚満足도를 분명히 說明해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 就業主婦의 結婚満足도에 대한 資源의 부정적 효과와 性役割態도의 긍정적 영향이 동시에 나타난 것을 就業主婦의 가치관 변화의 과도적 과정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앞으로 就業主婦의 性役割態도가 현재의 類似近代의 태도에서 보다 近代의 태도로 변화할 경우 규범적 자원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셋째, 以上の 結論에서 就業主婦의 부부적응 양상은 자원이론으로도 規범적 자원이론으로도 분명히 說明할 수 없는 과도적 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아직은 性役割態도의 긍정적 효과가 資源의 부정적 효과를 능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의 변화방향이 주목된다.

就業은 필연적으로 그에 따르는 資源의 획득을 수반한다고 볼 때 앞으로 이러한 資源의 否定的 効果가 극복되지 않는한 취업주부의 가족관계 적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資源이 가지는 이러한 강한 부정적 효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本 研究結果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여기에는 아마도 남편의 부적절한 부양자역할 수행, 부양자역할 공유에 대한 취업주부 자신의 거부감(일명 신데렐라 콤플렉스), 많은 資源을 就業을 통해 얻기 위해 치러지는 댓가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말해 婦人이 就業하게 된 동기가 생활대책 수립을 위한 경제적 필요에 있을 경우 이는 부양자역할을 수행해야 할 남편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건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치 못함으로써 나타난 結果로 볼 수 있어 婦人이 就業을 통해 많은 資源을 얻는다는 것 자체보다는 남편의 무능력이나 불성실이 결혼불만의 일차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도 만일 就業을 하고 있는 해당 부인이 가족의 생활을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 의식에서 탈피해 있을 경우 就業에 의해 획득되어지는 資源이 結婚의 불만과 관련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本 研究對象이 된 취업부인의 경우 해당 부인이 가진 근대적 성역할

태도의 긍정적 효과가 자원이 결혼만족도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 효과를 능가하지 못함으로써 就業에 의해 획득되어지는 資源은 부인자신이 어떠한 가치관(性役割態度)을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就業에 따르는 資源의 획득이 부양자역할의 공유에까지 이르는 것을 거부하는 취업주부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의식이 취업에 따라 획득하는 자원이 많을 경우 결혼만족도를 더욱 낮추는 경향을 유발한다.

한편 就業主婦가 직업을 통해 많은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을 필요로 하리라는 것도 再論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就業을 통해 많은 資源을 얻는 婦人은 적은 資源을 얻는 婦人에 비해 가정과 직장사이의 역할이중성으로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과중한 부담이 결국은 결혼의 불만족과 관련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資源이 就業主婦의 결혼만족도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 효과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本 研究結果를 통해 유추한 것일뿐 실증적으로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의 研究에서 이에 대한 실증적 규명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취업부인의 성공적인 가족관계 적용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

參 考 文 獻

〈國內文獻〉

1. 서 적

-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1987.
 노동청, 「한국노동통계연감」, 1973.
 노동청, 「한국노동통계연감」, 1986.
 유영주, 「신가족관계학」, 교문사, 1984.
 윤서석, 우영희, 지영숙, 김양희, 채옥희. 「현대사회와 가정문화」, 수학사, 1986.
 최재석, 「현대가족연구」, 일지사, 1982.
 콜레트, 다울링, 홍수원 옮김. 「여왕심리의 갈등, 신데렐라콤플렉스」, 우아당, 1985.

- 한남제, 「한국도시가족연구」, 일지사, 1984.
- 홍승직, 임희섭, 양춘, 조형.
「한국사회개발연구 III」, 고대아세아문제 연구소
2. 논 문
- 권정임, “부부간의 대화를 통한 결혼생활의 만족도-40대 주부의 학력별로 나누어 본 만족도,” 영남대학교원석사학위논문, 1981.
- 김명자,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른 가정내 역할 수행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제19권 3호(1981) : 69-80.
- 김순옥, “부인의 취업이 부부간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 이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2.
- 김은주, “도시부인의 職業 및 家庭生活에 대한 일고찰” 이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김혜연, “女性の 性役割에 관한 研究” 고대석사학위논문, 1982.
- 김홍은, “夫婦의 資源과 부부권력과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4호(1986) : 179-188.
- 박숙자,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관한 態度研究” 梨大碩士學位論文, 1978.
- 박영옥, 한상숙. “가족 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5권 1호 : 33-50.
- 박진숙 “전문직을 가진 주부와 일반주부의 家庭內 역할분담 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박태은, “性役割態도와 結婚滿足度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권 2호(1983) : 139-150.
- 서병숙, 김윤.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권 2호(1983) : 127-138.
- 설광석, “자아개념과 결혼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연진영, “어머니의 職業有無와 子女의 M.M.P.I.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8집 3호(1980.9)
- 옥선화, 정민자.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1호(1984) : 79-92.
- 유은희, “한국도시부인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이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 윤명희, 임정빈. “도시남편의 結婚滿足도와 家事勞動 참여에 관한 研究”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권 2호(1985) : 45-60.
- 이동원, “職業女性的 이중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27집 : 229-265.
- 이미숙, “主婦의 性役割 구분태도에 관한 연구-서울시 주부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이미숙, “子女의 性, 연령, 수와 主婦의 性役割態도가 結婚滿足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권 2호(1985) : 151-170.
- 이미화, “아동기 자녀의 성 유형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이숙,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性役割態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4호(1986) : 199-208.
- 이연주, “主婦의 就業에 따른 家庭內 역할수행에 관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4호(1984) : 131-146.
- 이연주, “한국가족의 변화에 관한 一研究”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2호(1984) : 101-112.
- 이인수, 유영주. “結婚滿足度 尺度의 타당화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4권 1호(1986) : 1-14.
- 이영숙, “한국도시가족 부부간의 지위관계와 부인학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 이은숙, “한국가족의 부부간의 권위관계에 대한 유형적접근-근대화의 일면” 「한국사회학」 제11집(1977) : 95-107.
- 이정덕, 홍연애. “성역할 개념형성과 教育에 관한

- 이론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1호(1984) : 93-110.
- 이정연, "남편의 性役割態도와 結婚滿足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2.
- 이정연,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관한 연구-전주 지역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21권 3호(1983) : 131-138.
- 이정연, "主婦의 結婚滿足도와 관련변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25권 1호(1984) : 67-78.
- 이정우, 김규원. "저소득층 취업주부 가정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성남시 就業主婦를 中心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4호(1986) : 163-178.
- 이정우, 정종희. "어머니의 성역할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1호(1984) : 67-78.
- 이현정, "한국청소년의 여성성공 공포에 관한 연구-남녀고교생의 성취의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4.
- 이형실, 옥선화. "남편과 부인의 性役割態도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권 2호(1985) : 31-44.
- 이효재, 조형. "女性經濟活動 및 就業에 관한 研究" 1960~1970의 추이,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27집(1975) : 267-291.
- 장재정, 박명희. "女性就業을 위한 기초研究" 「생활과학연구논집」 제3권 1호성심여대(1983) : 19-35.
- 정옥분, "한·미 양국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감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4호(1986) : 123-137.
- 정해은, 서병숙. "여성전문직 종사자의 家庭內役割에 관한 研究-서울시내 여자교수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창간호(1983) : 27-42.
- 조성욱, 신호식. "結婚滿足도와 자아개념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5권 1호 : 177-200.
- 조 은, "경제발전과 여성의 노동, 이론적 현실적 쟁점들" 「현상과 인식」 가을호(1983) : 53-69.
- 조혜정, "부부권력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 취업/비취업주부의 연구" 「한국사회학」 제15집(1981) : 37-47.
- 주경란, "한국 전문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 분석" 「한국 사회학」 제14집 : 87-101.
- 최규권, "夫婦의 性役割態도와 結婚滿足도에 관한 研究(1)"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2호(1984) : 91-102.
- 최외선, "부부의 역할기대와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79.
- 홍두승, 職業分析을 통한 계층 연구-한국 표준 직업 분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서울대사회과학연구소, 5권3호(1983. 12) : 69-87.
- 홍사원, 한인숙, "한국 기혼여성의 취업과 출산력" 「인구문제논집」 12월(1981), 제23호, 인구문제연구소 : 31-44.

〈外國文獻〉

1. 서 적

- Bell, D.,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 Basic Books, 1973.
- Blood, Robert O. Jr. and Donald M. Wolfe, *Husbands and Wives*, The Free Press, 1960.
- Burr, Wesley R., Reuben Hill, F. Ivan Nye, Ira L. Reis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The Free Press, 1979.
- Carmines, Edward G. and Richard A. Zeller, *Reliability and validity assessment*, Sage Publications, Inc., 1980.
- Cromwell B. E. and D. Olson, *Power in Families*, 1975,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5.
- Hoffman, Lois, Wladis, F. Ivan Nye, Stephen J. Bahr, Arthur C. Emlen, Joseph B. Perry, Jr., Marion Gross Sobol, *Working Mothers*, Jossey-Bass,

- Inc., Publishers, 1974.
- Iversen, Gudmund R. and Helmut Norpoth, *Analysis of variance*, Sage Publications, Inc., 1980.
- Lewis-Beck, Michall S., *Applied Regession and introduction*, sage Publications, Inc., 1980.
- Myrdal, Alva and Viola Klein, *Women's Two Roles*, Routledge & Kegan Paul Limited, 1956.
- Nie, Norman H., C. Hadlai Hull, Jean G. Jenkins, Karin Steinbrenner, Dale H. Bent,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McGraw-Hill Inc., 1975.
2. 논문
- Acock, Alan C. and John N. Edwards, Egalitarian Sex-role Attitudes and Female Inco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Aug. 1982) : 581-589.
- Booth, Alan, Wife's Employment and Husband's stress : A Replication and Refu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 1977) : 645-649.
- Brogan, Donna and Nancy G. Kutner, Measuring Sex-Role Orientation : A Normative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1976) : 31-40.
- Burke, Ronald J. and Tamara Weir, Relationship of Wive's Employment Status to Husbands, Wife and pair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May. 1976) : 279-287.
- Burr, Wesley R., Louise Ahern, and Elmer M. Knowles, An Empirical Test of Rodman's Theory of Resources in Cultural contex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Ang. 1977) : 505-514.
- Chadwick, Bruce A., Stan L. Albrecht, and Phillip R. Kunz, Marital and Family Role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Aug. 1976) : 431-440.
- Donohue, Kevin C. and Robert G. Ryder, A Methodological Note on Marital Satisfactioin and Social variab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Aug. 1982) : 743-748.
- Ewer, Phyllis A., Eileen Crimmins and Richard Oliver,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Husband's Income, Family size and Wife's Employment in the Early stages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 1979) : 727-738.
- Hiller, Dana V. and William W. Philliber, Predicting Marital and Career Success Among Dual-Work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1982) : 53-62.
- Houseknecht, Sharon K. and Annes Macke, Combining Marriage and Career : The Marital Adjustment of Professional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Aug. 1981) : 651-661.
- Keith, Pat M. and Robert B. Schafer,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both Spouses and Depression in Two job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 1983) : 877-884.
- Kim, Muncho, *Levels and determinants of Female Job satisfaction For a National Sample of Females*, 1982.
- Larzelere, Robert E. and Ted L. Huston, The Dyadic Trust scale : Toward Understanding Interpersonal Trust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Aug. 1980) : 595-604.
- Mahoney, Thomas A., Factors Determining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14, 1961.
- Modonald, Gerald W., Family Power : The Assessment of a Decade of Theory and Research, 1970~1979, *Decade Review : Family Research 1970~1979*,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1980 : 111-124.
- McNamara, Mary Lou and Howard M. Bahr,

- The Dimensionality of Marital Role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1980) : 45-54.
- Miller, Brent C., A Multivariate Development Model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 1976) : 643-656.
- Norton, Robert, Measuring Marital Quality :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1983) : 141-151.
- Osmond, Marie Withers, Reciprocity : A Dynamic Model and a Method to Study Family Pow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1978) : 49-61.
- Philliber, William W. and Dana V. Hiller, Relative Occupational Attainment of Spouses and later Changes in Marriage and Wife's work Experi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1983) : 161-170.
- Richardson, John G, Wife Occupational Superiority and Marital troubles : An Examination of the hypo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1979) : 63-72.
- Richmond, Marie La Liberte, Beyond Resource Theory : Another Look at Factors Enabling Women to Affect Family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May. 1976) : 257-266.
- Roach, Arthur J., Larry p. Frazier and Sharon R. Bowden,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Aug. 1981) : 537-546.
- Rollins, Boyd C. and Stephen J. Bahr, A theory of Power Relationships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 1976) : 619-627.
- Rosen, Benson, Thomas H. Jerdee and Thomas L. Prestwich, Dual-Career Marital Adjustment : Potential Effects of Discriminatory Managerial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Aug. 1975) : 565-572.
- Safilios-Rothschild, Constantina, A Macro-and Micro Examination of Family Power and Love : An Exchange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May. 1976) : 355-362.
- Scanzoni, John and Greer Litton Fox, Sex-Roles, Family and Society : The Seventies and Beyond, *Decade Review : Family Research 1970*" 1979,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1980 : 20-33.
- Sharpley, C. F. and D. G. Cross, A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Spanier Dyadic Adjustment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Aug. 1982) : 739-741.
- Spanier Graham B. and Robert A. Lewis, Marital Quality : A Review of the Seventies, *Decade Review : Family Research 1970*" 1979,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1980 : 96-110.
- Spanier Graham B., Measuring Dyadic Adjustment :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1976) : 15-28.
- Spanier Graham B. and Linda Thompson, A confirmatory Analysis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Aug. 1982) : 731-737.
- Szinovacz, Maximiliane E., Another Look at Normative Resource Theory : Contributions from Austrian Data-A Research Not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May. 1978) : 413-421.
- Tomeh, Aid a K., Sex-Role Orientation : An Analysis of Structure and Attitudinal predi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May. 1978) : 341-354.
- Wright, James D., Are Working women Really

- more Satisfied : Evidence From Several National Survey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May. 1978) : 301-313.
- Yogev, Sara, Do professional Women have Egalitarian 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 1981) : 865-871.
- Zimmerman, Karen W., Denise A. Skinner, and Roger Birner, Career Involvement and Job satisfaction as Related to Job Strain and Marital Satisfaction of Teachers and Their Spous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July. 1980), vol. 8, No. 6 : 421-427.